

코로나19 관련 주요 해외 동향(8월 3주차)

국가	주요 동향
미 국	<p>바이어·수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T사, K사) 최근 팡이버섯 판매가 서서히 늘어나면서 중국계 바이어들의 한국산 팡이버섯 수입이 다시 시작되어 가격 경쟁에 따른 가격 하락 조짐이 보임. 리스테리아균 등 위험 예방을 위한 수출 농가 위생 검사 강화 필요 ○ (B사) 코로나19 상황에서 한국산 면류, 만두, 국수 등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 다양한 신제품 개발 시 시장 확대 가능성이 있어 보임 ○ 미 농무부(USDA) 산하 농업마케팅국(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, USDA)은 2020년 8월 5일에 2020년 10월 5일부터 새로이 강화된 유기농산물 생산관리 및 감독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 발표 ○ 최근 외국산 냉동식품으로 코로나19가 전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전문가들은 음식, 그중에서도 냉동포장식품을 통해 코로나19에 걸릴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의견 보도(8.14, 뉴욕타임즈)
	<p>유통·소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월마트는 인스타카트*를 통해 LA, 샌프란시스코, 샌디에고 등에 그로서리부터 홈데코까지 제품을 배송하겠다고 발표(슈퍼마켓 뉴스, 8.17) * 인스타카트 : 온라인 기반 농산물 배송 서비스 ○ 크로거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사업에 참여 의사 밝힘(슈퍼마켓 뉴스, 8.17)
인 니	<p>유통·소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재무부 금융정책기구(BFK)는 세수확대를 목적으로 인도네시아 생산농산물·임산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10%를 과세할 것이며 이로 인해 올해 8~12월 동안 총 3천억 루피아(약 24억원)의 세수 증가를 전망함
	<p>기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한·인도네시아 기업인, 각국 방문시 관련 부처(인도네시아는 투자조정청, 한국은 산업부 등)의 인정을 받은 중요 사업상 목적이 있을 시 제한적으로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 가능
말 련	<p>바이어·수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요 수입업체에 따르면 코로나 확산세 감소로 식당 등 외식업 오프라인 영업 점차 활성화, 유통매장은 안정화 되었으나 매출은 예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
	<p>유통·소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코로나로 인해 2분기 서비스 부문 매출 전년 대비 24% 감소 (소매업, 식음료 및 숙박부문 최대감소)
E U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유럽통계청(Eurostat) 발표(8.5)에 따르면 유로존 19개국 소매업판매가 5월부터 전월대비 2개월 연속 증가, 6월 판매는 전년동월대비 1.3% 증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다만 독일, 오스트리아 등은 5월 큰 폭 증가 후 6월 다시 감소세 전환 - 품목별로는 의류와 신발이 5월 224.1%의 기록적 증가세, 봉쇄조치 해제 영향으로 전자상거래 판매는 소폭 감소